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3차 동북현상(東北現象)'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3차 동북현상(東北現象)’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동북진흥 정책 개황	4
3. 3차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	7
4. 시사점	13
【별첨 1】 동북3성 지역 개황	15
【별첨 2】 동북3성 주요 경제개발지구	22
【HRI 경제 통계】	26

< 요약 >

■ 연구 배경

각 지역별로 성장 방식이 상이한 중국 내에서도 동북3성은 경제 성장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북현상'이란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본래 동북현상은 과거 빠르게 성장한 동북3성 경제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1차 및 2차 동북현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동북3성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이하 동북진흥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북현상의 의미가 지역 경제의 재건(3차 동북현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3성의 성장은 한국에게도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동북진흥 정책 및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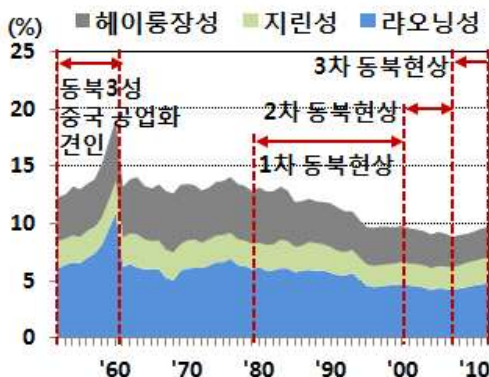
■ 동북진흥 정책 개황

(목적) 동북진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지역 발전과 사회 안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기존 체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미개척 지역을 개발하는 서부대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2003년 당시 장쩌민 주석(중국 4세대 지도부)은 이전 지도부의 불균형발전 전략에서 탈피한 발전 모델이 필요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동북진흥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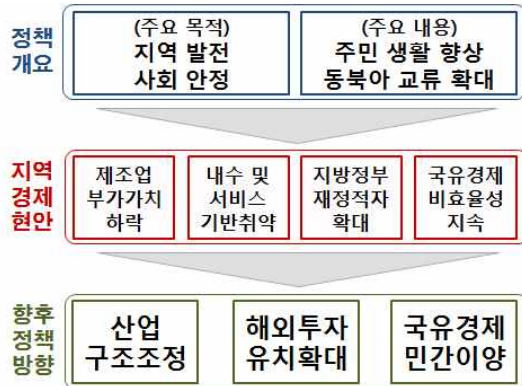
(내용) 지역 개발에 있어 주민 생활의 향상과 동북아 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2003년 동북진흥 정책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인된 이후 대외 개방의 강조, 지역 간 조화 발전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동북지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방 계획이 별도로 발표되는 등 동북아 교류에서 동북3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 국유기업 민영화와 노후 시설의 폐쇄 등으로 지역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2004년 3,000개 이상이었던 국유 제조업체는 2010년 이후 1,000개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1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 중이다. 하지만 2010년까지 제시된 지역 경제 목표에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중국 GDP 대비 동북3성 비중 >



< 동북진흥 정책의 주요 특징 >



■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

①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다.** 동북3성은 근로자의 반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제조업의 경제 비중은 이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저가 상품 중심의 생산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의 주장이 확산되는 원인이다.

동북3성은 중국 내에서도 주민 소득수준에 비해 지역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지역에 속한다. 또한 2000년대의 성장은 소비보다는 고정자본 형성에 의존한 한계가 있어 정부는 내수 시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정부 재정 부담 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핵심 정책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동북3성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는 8.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GR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6% 내외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중국의 다른 지방정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과거 동북3성의 해외 투자 유치는 랴오닝성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동북진흥의 진행에 있어 해외 자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한편,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망된다.

③ **중앙정부 및 동북진흥 정책의 핵심인 국유 경제의 민간 이양이 가속화된다.** 2003년 동북진흥의 시작과 함께 동북3성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2013년 말 중앙정부가 3중전회를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한편, 동북3성 지방정부는 재정 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가운데 동북진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남아 있다. 결국 지역의 제조업 생산시설 합리화와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 제조업체의 민영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첫째, 동북3성의 물류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 교역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신소비 시장 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 민영화의 기회를 활용한 현지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광물, 농산물 등 동북지역의 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자원 공급 기지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현지 한국 동포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1. 개 요

○ 연구 배경

- 동북3성은 각 지역별로 경제 성장의 속도 및 방식이 다른 중국 내에서도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지역
 - 중국은 넓은 면적에 따른 지리적 환경의 차이, 민족 및 노동인구 등 인구 구조의 차이, 지방 정부 간 성장 정책의 차이 등으로 지역마다 성장 방식이 상이
 - 이 중에서도 동북3성은 1950년대부터의 고속 성장, 19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장기 침체, 2000년대 후반 이후의 부활을 경험
 - 특히 동북지역의 발전은 성장 속도의 둔화 추세에 접어든 최근의 중국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동북진흥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던 동북3성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
 - 동북3성 지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수립된 동북진흥 정책은 중국 중앙 정부가 국가급 정책으로 시행 중
 - 장기 발전 프로젝트인 동북진흥은 정책적 변화에 따라 성장 방식이 결정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사업
 - 2000년대에는 동북진흥 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구조 개혁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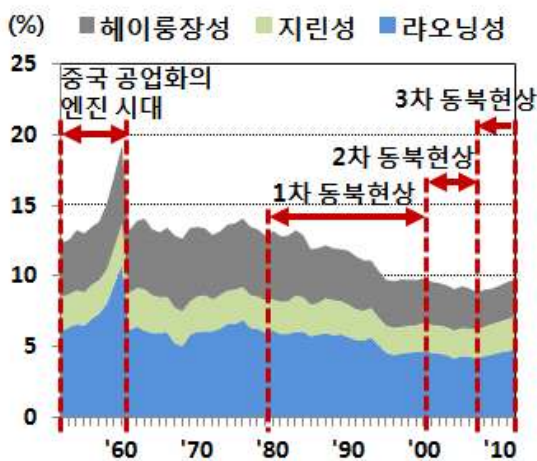
- 동북3성의 발전은 한국에게도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동북진흥 정책 및 성장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
 - 동북3성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다수의 한국 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경제 성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이에 따라 동북3성의 성장을 견인 중인 동북진흥 정책과 지역의 성장을 의미하는 동북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동북현상(東北現象)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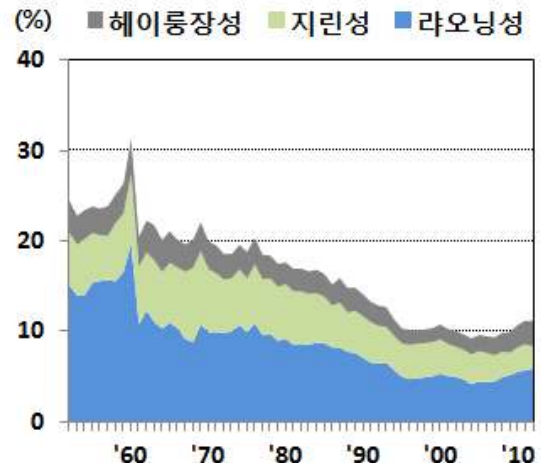
- (1, 2차 동북현상)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흐름에서 동북3성이 소외되고 지역의 중화학 공업이 붕괴되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경험
 - 성장의 엔진 역할: 1950년대 소비에트식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에서 풍부한 자원과 일제 강점기의 공업 기지를 보유한 동북3성이 핵심 지역으로 부상
 - 1차 동북현상: 국영기업, 중공업에 의존한 동북3성은 1978년 시작된 경공업과 민영화 중심의 개혁·개방 이후 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업률 상승이 상생
 - 2차 동북현상: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동북3성의 농산물 판매가 급감하고 경제 침체가 가중

- (3차 동북현상) 2000년대 중반 동북3성에 대한 국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동북현상의 의미가 지역발전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전환
 -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3성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추월하는 등 2003년부터 추진된 동북진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특히 과거 동북3성 경제의 부흥과 쇠락에 있어 주요 요인이었던 제조업이 동북진흥을 통해 재부상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중국 GDP 대비 동북3성 비중 >



< 중국 제조업 GDP 대비 동북3성 비중 >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 동북3성의 성장에 대한 기대

- 2013년 12월 13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동북진흥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향후 동북3성 성장의 특징을 제시
 -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6대 중점 과제로 국가 식량 안보, 국민 생활수준 향상, 산업 구조조정, 채무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 발전, 개방 확대를 제시
 - 중점 과제의 대부분은 기존 동북진흥 정책과 대동소이하하며, 동북지역이 중국의 최대 곡물 생산지라는 점에서 국가 식량 안보 과제와도 관련

- 동북3성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
 -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경제의 핵심 대도시에서 동북3성을 거쳐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은 이미 연결된 상황
 - 향후 한국과 중국 간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고 러시아 및 유럽 대륙까지 육로가 확장될 경우 동북3성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이밖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동북3성의 자원 생산 및 공급 등 자원 전략적 측면에서도 동북3성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 2013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과 동북3성의 연관성 >

중앙경제공작회의 6대 중점 과제	동북3성 연관성
(6대 중점 과제) ① 국가 식량 안보 ② 국민 생활수준 향상 ③ 산업 구조조정 ④ 채무리스크 관리 강화 ⑤ 지역 발전 ⑥ 개방 확대	① 중국 최대 곡물 생산지 (동북진흥 주요 내용) ② 주민 소득 증대 ③ 산업 구조조정 ④ 민영화 ⑤ 지역 발전 ⑥ 대외 투자 유치 확대

< 동북3성의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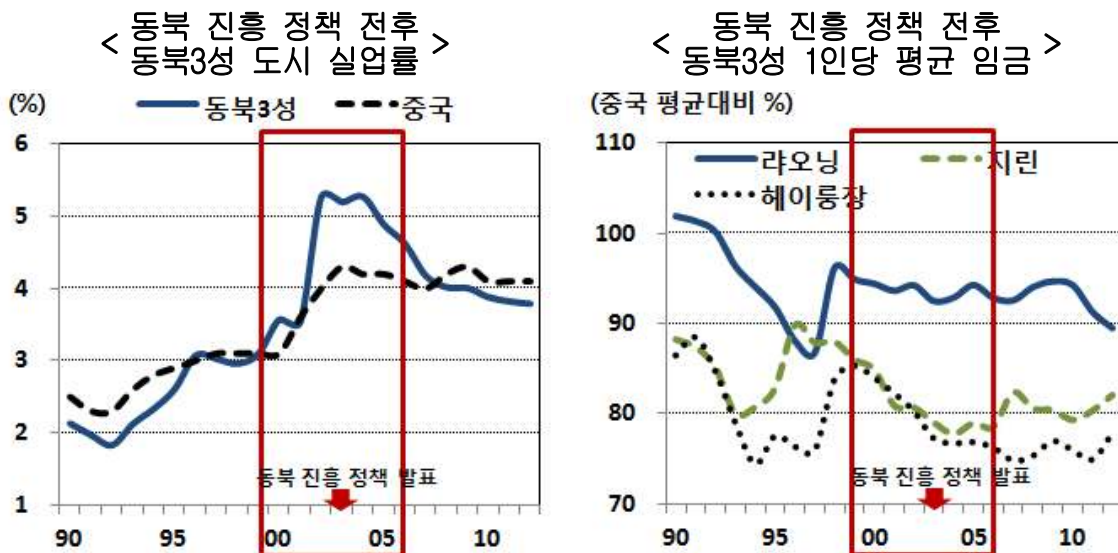
자료: 2013年中央經濟工作會議,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東北地區振興規劃, 東北振興“十二五”規劃.

2. 동북진흥 정책 개황

○ 배경

- 2000년대 초반 동북3성은 경제 침체로 인한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당시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발전 정책을 통한 존재감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
 - 2000년을 전후로 동북3성은 실업률 상승, 임금 하락 등에 따른 민생 악화 및 지역 사회 불안의 문제가 대두
 - 특히 동북3성은 1980년대 이후 중앙 정부의 불균형경제발전전략에서 소외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던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은 더욱 증대
 - 이전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이 필요했던 새로운 지도부(4세대, 2002년 출범)의 장쩌민 주석은 불균형 발전에서 탈피한 지역 간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

- 동북진흥은 서부대개발과 비견되는 국가적 사업이지만, 기존 체제의 개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상이
 - 동북3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동북진흥은 다른 낙후지역인 서부를 개발하는 서부대개발과 함께 중국의 지역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
 - 다만, 동북진흥의 주요 목적은 낙후된 제조 시설과 산업의 구조조정, 공공 중심의 경제로 발생하는 낮은 효율성의 개선
 - 이는 미개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서부대개발과 달리 동북진흥 정책은 기존에 형성된 경제 및 산업 구조의 개혁을 의미



자료: 中國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 주요 내용

- 2003년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의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국가급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외 개방, 조화로운 발전 등의 내용이 강조 및 추가
 - 2003년 중국 국무원이 동북진흥 정책을 승인하면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국가급 정책이 공식적으로 실시
 - 특히 2005년 국무원은 동북진흥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대외 개방 부분에 대한 공식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재차 강조
 - 이후 중국 국가 정책이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지역 간 조화에 중점을 두면서 2007년에는 조화로운 발전을 추가한 동북진흥 정책이 발표

- 2000년대 후반에는 기존 동북진흥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실행의 가속화를 강조하는 한편, 대외 개방의 방편으로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시
 - 2009년에는 동북진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역의 자주혁신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향후 정책 실행의 가속화를 강조
 - 2012년 동북진흥“12·5”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진흥 정책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동북진흥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정책 문건은 동북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과 함께 주변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등 대외 협력을 강조

< 동북진흥 관련 주요 정책 발표 >

발표 정책	주요 내용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2003년)	- 동북진흥의 첫 번째 국가급 공식 정책 - 제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육성, 개방 강화 등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2005년)	- 동북진흥 정책 진행에서의 대외개방 강조 - 투자환경 개선, 해외자본의 국유기업 인수 확대 등
동북지역진흥계획(2007년)	- 장단기 구체 전략 제시(2007~2011년, 2007~2020년) - 도농 등 조화로운 지역 발전 내용 추가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의 실시에 관한 의견(2009년)	- 동북진흥 정책 실행의 가속화를 재강조 - 지역 스스로의 혁신과 민생 안정 부분 강조
동북진흥“12·5”계획(2012년)	- 동북진흥 정책의 12·5 기간(2010~2015년) 목표 제시 - 산업 구조조정, 개방 강화 등의 정량, 정성 목표 제시
중국동북지역의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개방 계획(2012년)	- 동북지역의 동북아시아 국가 협력 강화를 제시 - 물류 인프라 확대, 투자 유치, 합작사업 및 교역 증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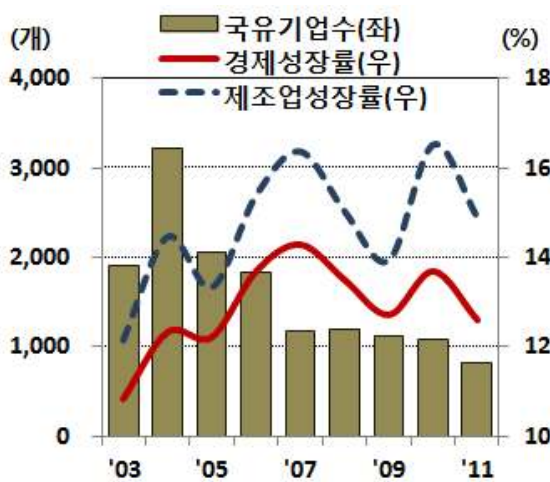
자료: 中國國務院, 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2003), 關於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2005), 東北地區振興規劃(2007), 關於進一步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2009), 東北振興“十二五”規劃(2012), 中國東北地區面向東北亞區域開放規劃(2012).

○ 주요 성과

- 국유기업의 민영화, 노후 공업 시설의 폐쇄 등 제조업 개편의 노력으로 국유기업 수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
 - 2000년대 초반 3,000개 이상에 달했던 동북3성 내 국유 제조업체는 기업 간 합병 및 민영화를 통해 2010년 이후에는 1,000개 미만으로 감소
 - 동북3성 경제의 중심이었던 국유 제조업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프라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속도는 오히려 증가
 - 이에 따라 동북3성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0%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중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

- 동북3성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5~2010년) 동안 서비스업 육성 등 일부 목표를 제외한 대부분을 달성하면서 동북진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
 - 민간경제 비중 증가, 도시화율 제고, 식량생산능력 증대 등 산업 정책 시행 및 자본 투자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는 대부분 달성
 - 특히 1인당 GRDP가 빠르게 증가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의 1차 목표는 달성
 - 다만, 지역 경제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을 물론, 오히려 기존 수치보다 하락한 점은 기존 동북진흥 정책의 한계로 지적

< 동북3성 경제성장률 및 국유기업 수(제조업) 변화 >



< 11·5계획 기간(2005~2010년) 동북3성 성과 >

	2005년	2010년	
		목표	성과
1인당 GRDP(위안)	15,318	21,889	33,312
서비스업 비중(%)	38	41	37
민간경제 비중(%)	36	48	54
도시화율(%)	52	55	57
주민 교육 연수(년)	9	10	9
식량생산 능력(만 톤)	8,614	9,450	11,293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中國國務院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3. 3차 동북현상의 주요 특징

① 산업 구조조정

○ 저가 제품 생산 전략의 한계 직면, 서비스업 및 내수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 체질 개선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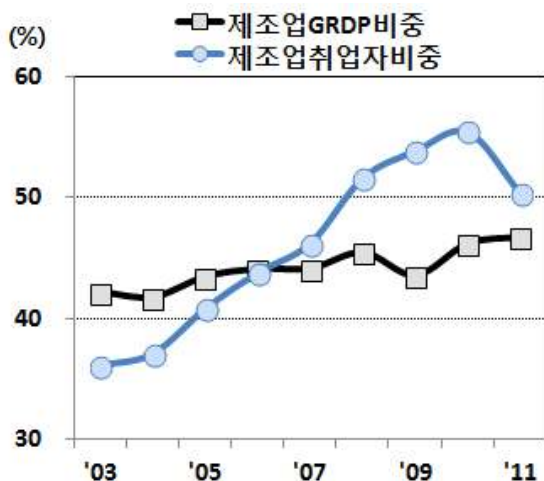
- 동북3성은 근로자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경제적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가 상품 중심 생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동북3성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50% 이상(2003년 36.0% → 2011년 50.4%)
-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조업의 경제적 위상은 증대되지 못하면서 취업자 비중에 비해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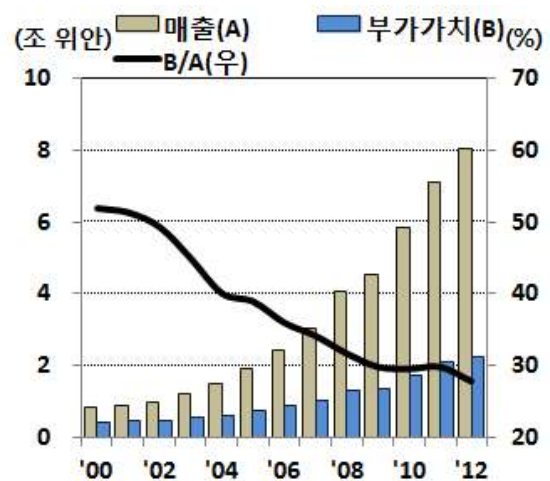
- 특히 지역 내 부존자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제조업의 경제 효과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주장이 확산

- 일제 강점기 이후 동북3성의 제조업은 농산물, 광물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두고 생산 기지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 2000년대 들어 원재료 이외에도 기술을 비롯한 부가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동북3성은 상품 경쟁력이 하락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율 역시 하락

<동북3성 경제의 제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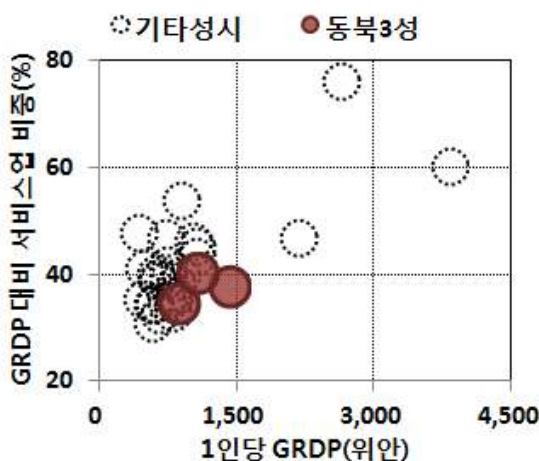
< 동북3성 제조업 매출 및 부가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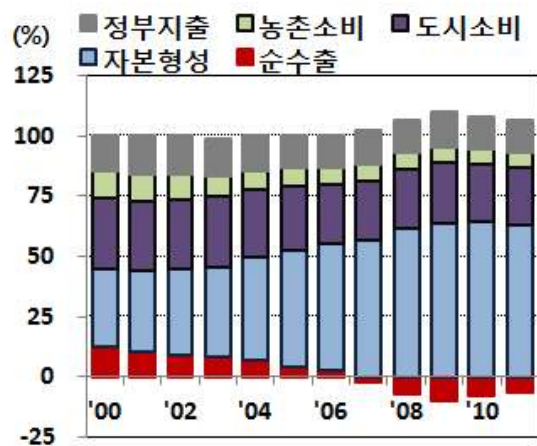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 중국의 기타 성시(省市)와 비교 시 동북3성은 주민 소득 수준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내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
 - 2012년 기준 동북3성의 1인당 GRDP는 800~1,400위안이며, GR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30~40% 수준
 - GR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40.5%인 헤이룽장성을 제외하면, 1인당 GRDP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성에 비해 동북3성 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편
 - 특히 동북3성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한계 직면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 동북진흥 기간 동안의 지역 경제 성장은 주민 소비보다는 자본 지출에 의존한 결과로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 시장 육성에 노력 중
 - 동북3성 GRDP에서 자본형성액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동북진흥 정책에 따른 지역 시장의 활성화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 특히 동북진흥의 최종 목표가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 발전임에도 2000년대 지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지속
 - 이에 따라 향후 동북진흥의 산업 구조조정은 제조업 부가가치화 및 서비스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 소득 향상 및 내수 증대에 보다 집중될 전망

< 중국 31개 성시 1인당 GRDP 및 서비스업 경제 비중 비교(2012) >



< 동북3성 GRDP 지출 요소별 비중 >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② 해외 투자 유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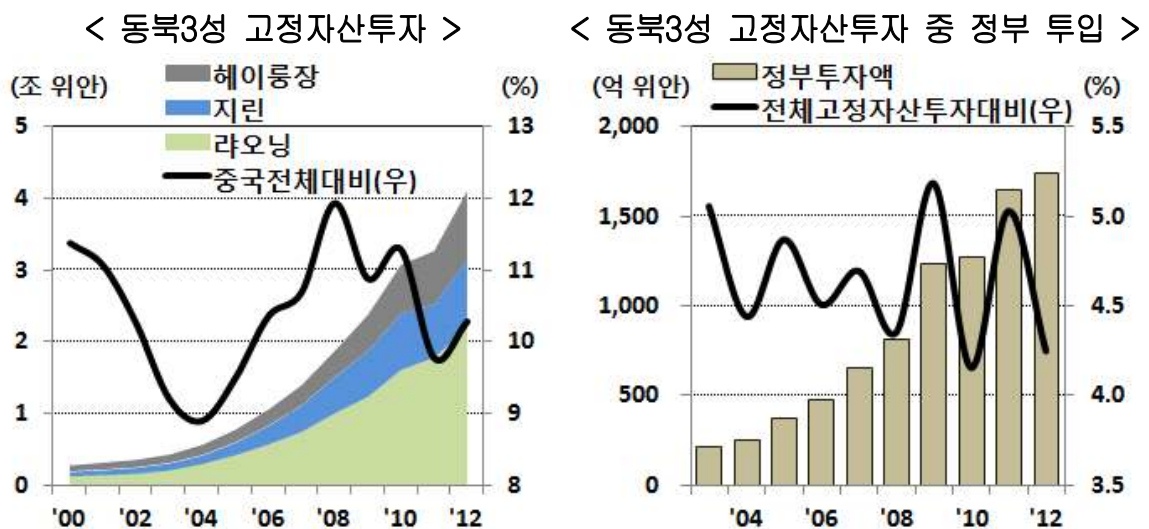
○ 민간 주도의 지역 개발 정책 지속과 동북3성의 재정 부담 등으로 향후 동북진흥 정책에서 해외 자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동북3성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증가 속도는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액과 비슷한 수준

- 2000년에서 2012년 동북3성의 고정자산투자액은 연평균 25.4% 증가하였으나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액 대비 비중은 9~13%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
- 한편, 동북3성의 고정자산투자가 랴오닝성에 집중(동북3성 대비 비중 2000년 45.8%, 2012년 53.2%)되는 등 투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역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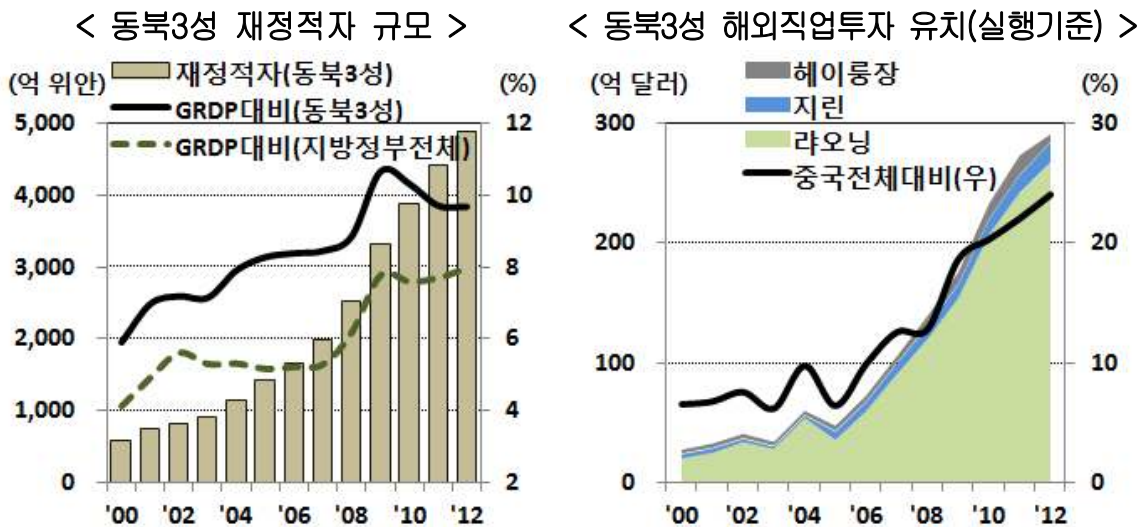
- 한편, 동북3성 고정자산투자에서 정부 투입 비중이 정체된 것은 민간 경제 중심의 성장에 중점을 둔 동북진흥 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 동북3성의 고정자산투자 중 정부 투입액은 2003년 213.0억 위안에서 2012년 1,743.2억 위안으로 증가
- 그러나 동북3성의 전체 고정자산투자 가운데 정부 투입액의 비중은 4~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모습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 특히 동북3성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증대는 동북진흥 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막는 주요 요인
 - 동북3성 지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2000년 575.8억 위안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는 4,891.5억 위안을 기록
 - GR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 역시 2000년대 초반 6% 내외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10% 수준까지 상승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모습
 - 이는 전반적으로 재정적자 폭이 증가한 중국 지방정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중국 전체 지방정부 GRDP 대비 재정적자 2000년 4.1% → 2012년 8.0%)
- 결과적으로 동북3성은 해외 투자 유치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특히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의 투자 유치가 주요 정책 목표로 부상
 - 2000년에서 2012년 동북3성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2.0%에 달하는 모습
 - 다만, 동북3성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중 랴오닝성의 비중은 2000년 76.2%, 2012년 92.1%로 나타나 해외 투자 유치는 사실상 랴오닝성이 주도
 - 민간 경제 주도 정책, 지방정부 재정 부담 확대, 투자 유치의 불균형 등을 고려 시 헤이룽장성 및 지린성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가 예상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③ 국유 경제의 민간 이양

○ 중국 중앙정부와 동북진흥 정책의 핵심인 국유 경제의 민영화는 국유기업 비효율성 및 정부 부채 부담 해결을 위해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

-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12월 3중전회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개선과 지역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흡수를 위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강조

·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중국 전체 국유기업의 자산회전율은 0.70회에서 0.82회로, 동북3성 내 국유기업은 0.65회에서 0.85회로 다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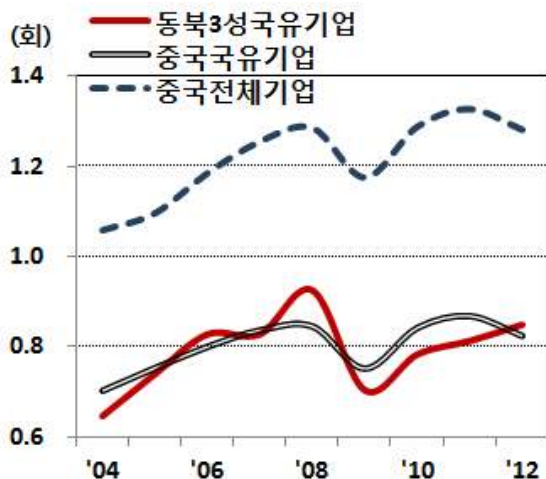
· 그러나 여전히 중국 전체 기업 평균 자산회전율에 미달하는 수치를 보이는 등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은 중국 정부가 민영화에 관심을 갖는 주요 요인

- 이미 동북지역은 동북진흥을 통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결과, 동북3성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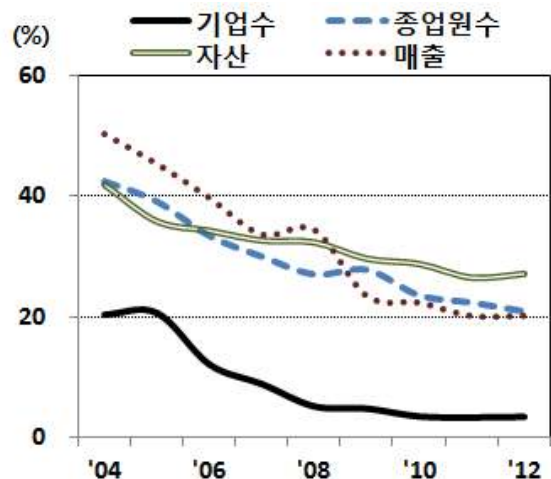
· 2004~2012년 동북3성 전체 기업 수 대비 국유기업 수의 비중은 20.3%에서 3.2%로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 비중 역시 크게 감소(42.5%→20.9%)

· 같은 기간 전체 기업 자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서 27.2%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50.5%에서 20.1%로 감소

< 중국 및 동북3성 국유기업 자산회전율 >



< 동북3성 내 국유기업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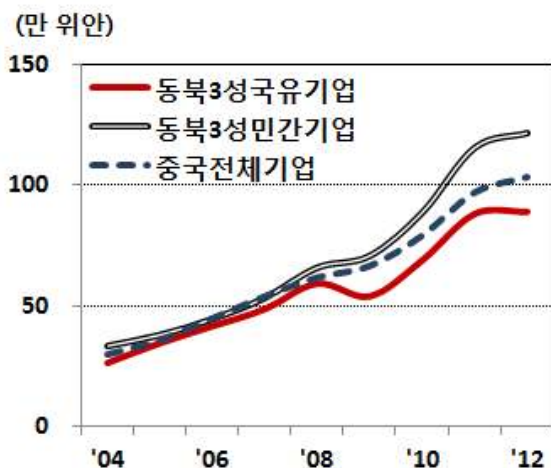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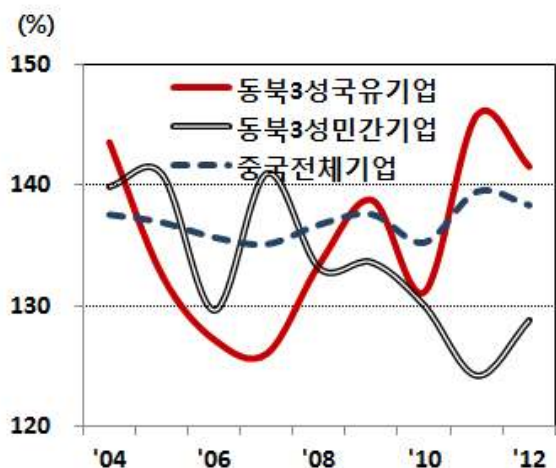
- 다만, 동북3성의 국유기업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동북3성 내 국유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2004년 26.2만 위안에서 2012년 88.8만 위안으로 증가
 - 반면, 같은 기간 동북3성 민간기업은 33.4만 위안에서 122.1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기업 평균은 30.0만 위안에서 103.4만 위안으로 더욱 크게 증가
 - 특히 동북3성 국유기업의 대부분은 자본집약산업인 중화학공업이라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1인당 매출액은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의미

-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가운데 동북진흥 정책 진행을 위한 재정 소요가 남아있어 국유기업 민영화가 더욱 강조되는 모습
 -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3성의 국유 경제는 동일 업종 기업 간 합병 등의 산업 합리화와 민간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가 동시에 진행
 - 특히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 소요가 많은 동북3성 지방정부는 국유기업 매각을 통한 부채 상각 및 재정 확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동북3성의 민간기업은 국유기업 및 타 지역 기업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는 등 재무 여건이 양호하여 국유 기업 인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음

< 동북3성 민간 및 국유기업 >
종업원 1인당 매출액



< 동북3성 민간 및 국유기업 >
부채비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재산출.

4. 시사점

첫째, 동북3성의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 교역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 한반도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은 인접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두는 모습
- 이에 따라 동북진흥 정책과 각 지역의 개발 정책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의 개선과 신규 구축이 포함
- 특히 한국은 러시아 및 유럽에 이르는 육상 교역로 확보를 위해 동북지역 물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불가피

둘째, 동북지역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새로운 소비 시장 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현재 중국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지역은 서부 대개발 대상 지역이며, 동북진흥 대상 지역은 그 다음에 위치
- 다만, 서부지역의 소득 수준을 고려 시 시장 형성의 현실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반면,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장 형성이 기대
- 특히 동북진흥 정책은 민간 중심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 시장 형성에 보다 유리한 상황

셋째, 산업 구조조정 및 국유기업의 민영화로 발생하는 현지 기업의 인수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 동북3성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지방 정부 재정의 불안정성 등으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불가피
- 더불어 해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동북진흥 정책에 따라 해외 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넷째, 광물, 농산물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동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해외 공급 기지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 동북지역은 중국에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생산 시설의 낙후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 생산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정부는 생산 시설의 현대화, 기업 구조조정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중국 동북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은 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자원 공급 기지 마련을 고려 가능

다섯째, 현지 한국 동포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 한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조선족과의 교류 확대는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
- 특히 학교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일깨워주는 것은 성장 시장에서 미래의 소비자를 선점하는 방법 중 하나
- 궁극적으로 동북지역에 한국의 문화권이 융성할수록 현지의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HRI**

김필수 선임연구원(pskim@hri.co.kr, 02-2072-6238)

【별첨 1】 동북3성 지역 개황

1. 개요

-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으로 구성된 동북3성은 러시아 및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의 신규 투자처로 관심이 증대
 - 2006년 이후 랴오닝성의 다롄시가 하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하계 대회)을 네 차례 개최하는 등 중국 동북지역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는 중
 - 특히 동북3성은 한반도의 북쪽,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중국,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심 지역으로 부상 중
- 동북3성의 2012년 GRDP는 5.0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의 9.7%를 차지하며, 2007년 ~ 2012년 연평균 GRDP 증가율(실질 기준)은 12.5%
 - 동북3성은 79.5만km²의 면적(한반도의 3.6배) 면적에 1.1억 명(중국 전체의 8.1%, 2012년 인구 센서스 기준)이 거주
 - 동북3성에는 선양시(랴오닝성 성도), 창춘시(지린성 성도), 하얼빈시(헤이룽장성 성도)를 포함하여 34개의 시(市)급 도시가 위치

< 동북3성의 위치 >



< 동북3성 개황 >

구분	랴오닝성 (遼寧省)	지린성 (吉林省)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성도	선양시 (瀋陽市)	창춘시 (長春市)	하얼빈시 (哈爾濱市)
인구	4,389만 명	2,750만 명	3,834만 명
면적	14.8만 km ²	18.7만 km ²	46.0만 km ²
GRDP	2.5조 위안	1.2조 위안	1.4조 위안

2. 동북3성 경제의 특징

○ 물류 인프라

- 동북3성의 물류는 중국 핵심 경제 지역과 동북지역 간 연결이 중심
 - 경합통도(京哈通道, 베이징~선양~하얼빈), 동부연해철로(東部沿海鐵路, 선양~다롄~열차페리~엔타이~광둥성) 등의 중국 종단 철도가 운영
 - 주요 해운 시설로는 중국 8대 항만 가운데 하나인 다롄항(랴오닝성)이 위치하여 동북3성의 해운 물류를 담당

- 중국 동부 경제 발전 지역 및 서부, 내몽고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 교통 인프라가 중국 동북지역 물류의 핵심
 - 동북3성 전체 물류량 가운데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까지 증대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의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 투자에서 기인
 - 주요 고속도로로는 통산선(同三線, 동북3성~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하이난성), 단라선(丹拉線, 단둥~베이징~티벳), 웨이만선(綏灣線) 등이 운영 중
 - 특히 웨이만선은 헤이룽 동쪽 국경에서 네이멍구자치구까지 연결되어 시베리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개발 이후 주요 물류 인프라로서 역할이 기대

< 동북3성 물류량 >



< 동북3성 고정자산투자 >



자료: 中國鐵道部, 中國交通運輸部,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주: 수운은 해운 및 내륙 수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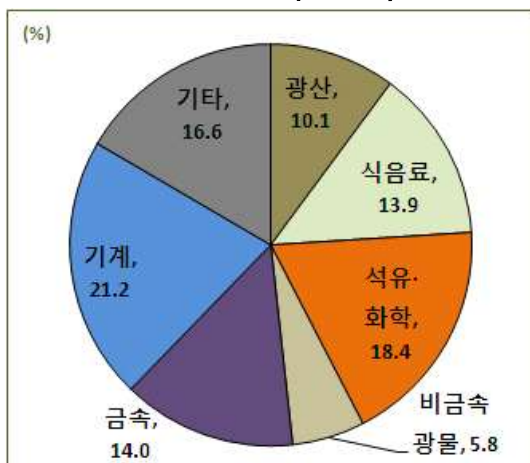
○ 주요 산업

- 광물 자원 관련 산업이 동북3성 광공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 동북3성의 전체 광공업 생산 중 광산 및 금속, 비금속광물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2011년 기준)
 - 이밖에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은 18.4%로 광물 자원의 채취 및 관련 제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

- 농업 역시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동북3성은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지
 -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동북3성의 곡물 생산량은 연평균 5.3%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연간 1억 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 중
 - 이는 중국 전체 곡물 생산의 18~19%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 동북3성의 곡물 생산 비중은 증가 추세를 지속

- 한편, 지방 정부는 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도모
 - 2013년 랴오닝성은 푸순시(撫順市)에 로봇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린성은 창춘시(長春市)를 전기차 산업 운행 시범 도시로 선정
 - 이밖에 헤이룽장성은 의약, 문화 및 관광, 장비제조, 무역 및 물류, 건축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 자본의 투입을 계획

< 동북3성 광공업 생산액 비중(2011년) >



< 동북3성 곡물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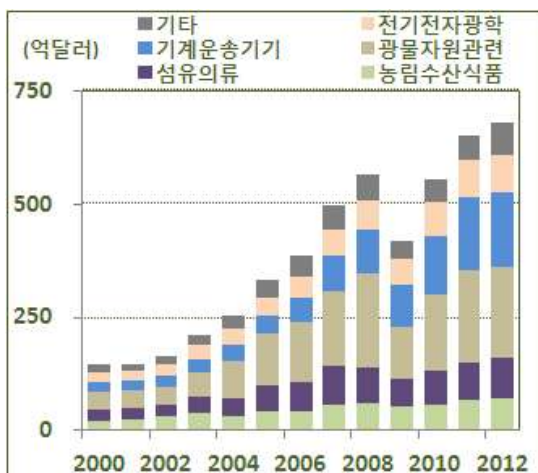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 주요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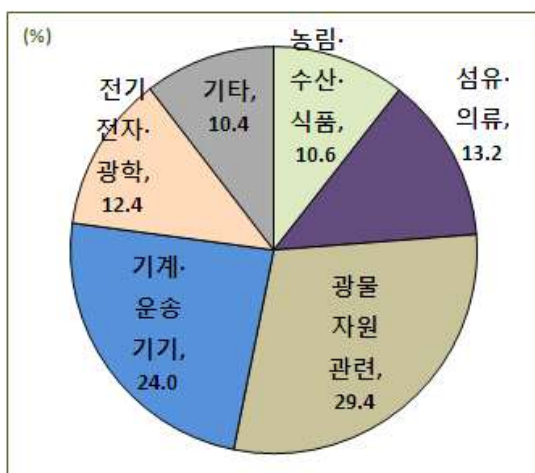
- 동북3성의 핵심 수출품은 지역 주력 생산품인 광물 자원 관련 제품
 - 광물,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 광물 자원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30%대에서 2012년 29.4%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의존도가 높음
 - 이 가운데 금속제품의 수출 비중은 2012년 기준 14.2%로 동북3성 광공업 생산 비중 14.0%와 비슷한 수준
 - 한편, 농림수산품의 수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등 광물 자원 외의 지역 자원은 수출보다는 중국 내 시장에서 소비

- 한편, 최근에는 수출 구조가 기계 분야로 점진적 전환이 진행 중
 -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동북3성의 기계 및 운송기기 수출은 연평균 21.9%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지역 수출에서 기계 및 운송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서 24.0%로 증가
 - 이는 지방 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동북지역의 경제가 천연 자원 중심으로 기계 제조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동북3성 주요 품목 수출액 >



< 동북3성 품목별 수출 비중(2012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광물자원 관련 산업에는 광업, 비금속광물 제조, 금속 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생산을 포함.

○ 소비 시장

- 주민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소득 수준이 향상 중

-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동북3성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5배 이상 증가하면서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
- 특히 동북3성 중 가장 경제가 발전한 랴오닝성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3.6배 증가한 반면, 지린성은 3.8배 헤이룽장성은 3.7배 증가
- 이는 동북3성 내에서도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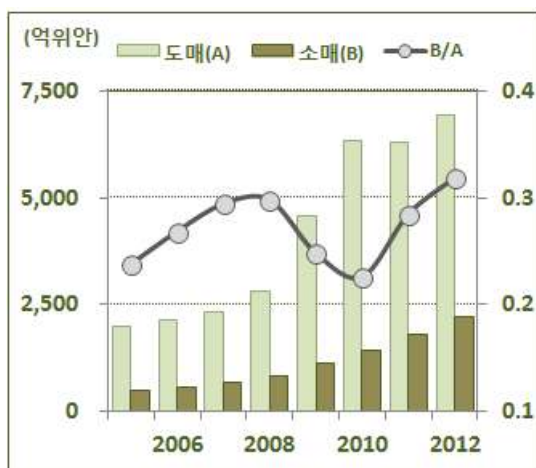
-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동북3성의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매 시장의 성장이 전체 소비 시장의 성장을 견인

- 동북3성의 도소매 판매액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연평균 20.5% 증가
- 같은 기간의 소매 판매액 연평균 증가율은 24.5%로 도매 판매액 증가율 19.4%를 상회
- 특히 2010년 이후 소매 판매액의 증가 속도가 증대되면서 도매 판매액 증가 속도의 위축에도 전체 도소매 판매액은 증가세를 유지

< 동북3성 1인당 평균 임금 >



< 동북3성 도소매 판매액 >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 주요 경제 발전 계획

- 동북3성은 12차 5개년 계획에 도시화, 내수 시장 및 서비스업 확대, 시장 경제 체제 완성 등을 주요 목표로 포함
 - 지역의 도시 인구 증대 및 도시화 제고는 동북3성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 또한 주민의 소비력 강화를 통한 내수 시장의 확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역시 동북3성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주요 과제
 - 이밖에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을 천명

- 이밖에 각 성들은 12·5 계획 기간 동안 노후공업기지의 개혁,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산업 구조조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랴오닝성은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 등을 중심으로 노후공업기지를 개혁하고 경제 수준을 중국 동부 연안 지역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
 - 지린성은 창춘시와 지린성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을 일체화하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
 - 헤이룽장성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포함하여 보다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을 중점 사항으로 지목

< 동북3성 12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		
		목표	2010년 실적	2012년 실적
랴오닝성	3차 산업의 GRDP 비중	42.0%	37.1%	38.1%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29,800 위안	17,713 위안	23,223 위안
	농촌주민 순소득	11,100 위안	6,908 위안	9,384 위안
	도시화율	70.0%	63.0%	65.7%
지린성	3차 산업의 GRDP 비중	40.0%	36.3%	40.5%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27,160 위안	15,412 위안	20,208 위안
	농촌주민 순소득	10,992 위안	6,237 위안	8,598 위안
	도시화율	60.0%	53.3%	53.7%
헤이룽장성	3차 산업의 GRDP 비중	40.0%	35.9%	34.8%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24,452 위안	13,875 위안	17,760 위안
	농촌주민 순소득	10,946 위안	6,211 위안	8,604 위안
	도시화율	60.0%	55.6%	56.9%

자료: KOTRA, 中國國家統計局, 遼寧省統計局, 吉林省統計局, 黑龍江省統計局.

3. 한국과 동북3성 간 경제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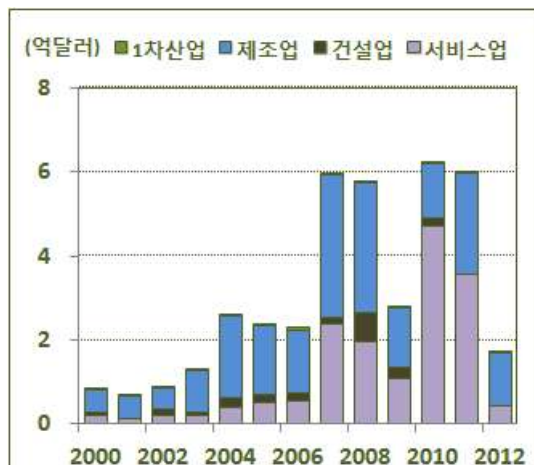
- 한국은 동북3성의 3번째 교역 국가이며,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이 교역의 중심
 - 2012년 기준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은 42.5억 달러, 수입은 66.9억 달러로 동북3성 전체 교역 중 한국의 비중은 6.4%
 - 한국의 동북3성 수출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3.8%
 - 수입의 경우 금속 제품이 전체 수입의 2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섬유·의류·가죽 및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 역시 24.1%로 작지 않은 수준

-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7년 및 2008년, 2010년 및 2011년 연간 6억 수준을 달러를 기록
 - 2007년과 2008년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직접투자의 57.3%, 53.8%를 차지하며 직접투자액의 급증을 견인
 - 한편, 2010년, 2011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76.4%, 59.4%에 달하는 등 동북3성의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한국의 동북3성 교역액 >



< 한국의 동북3성 직접투자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2】 동북3성 주요 경제개발구

- 동북3성에는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랴오닝연해경제벨트, 하다치공업벨트 등의 주요 경제개발지구가 형성
 - 랴오닝연해경제벨트는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한 경제개발지구로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지역
 - 반면,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하다치공업벨트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 국가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부상
- 동북3성의 경제개발지구는 중국과 한반도 간 교역은 물론, 장기적으로 유럽과 한반도 간 교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는 한반도,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국제 교역의 허브 역할이 기대
 - 하다치공업벨트 역시 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3성 및 러시아의 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

< 동북3성 주요 경제개발지구 >



1.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는 지린성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국가급 계획으로 동북진흥 전략과 맞물려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09년 국무원은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개요’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가 본 계획의 핵심임을 적시¹⁾
- 창춘시, 지린시,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지역 개발을 통해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지린성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구축할 것을 계획
 - 국제 물류 인프라 구축, 산업협력단지 건설, 경제자유협력지대 구축 등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교역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이 핵심 목표
 - 이를 위해 지역 산업 구조의 현대적 개혁,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관련 지원 및 정책 시스템 개선 계획을 마련
- 특히 연변조선족자치구 및 훈춘시의 개발 및 투자는 한국 기업들에게 지린성 지역 진출의 기회를 마련
 -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대외 개방 전초 기지로 구축하는 계획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한 조건
 - 현지 정부는 접경에 위치한 훈춘시를 글로벌 교역 창구로 육성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투자 유치에 노력 중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주요 내용 >

	내 용
대상 지역	창춘시, 지린시, 두만강 유역 연변조선족자치구
목표	- 1단계: 2012년 GRDP 2008년 대비 두 배 대외 물류 인프라 건설의 성과 창출 - 2단계: 2020년 GRDP 2008년 대비 네 배 종합 물류 인프라 구축 완료 동북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주요 개발 사업	- 창춘-지린시 일체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중심지 마련 -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대외 개방의 전초 기지로 구축 - 해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훈춘시를 대외 개방 창구로 육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1)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2009).

2. 라오닝연해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

- 동북3성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라오닝성에서도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한 지역으로 중앙 정부의 국가급 계획을 통해 더욱 빠른 성장이 전망
 - 이미 라오닝연해경제벨트는 동북3성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한 가운데, 2009년 국무원의 라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²⁾ 승인으로 발전이 가속화
- 라오닝성연해경제벨트는 다섯 개의 거점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의미하는 '5점 1선'의 지역 경제 개발이 핵심 전략
 -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라오닝성 당서기 시절 '5점 1선' 전략을 수립하면서 2007년 경제벨트발전계획을 마련
 - 계획에는 단둥시, 잉커우시/판진시, 진저우시, 다렌시의 공업 및 산업 단지가 포함되며, 단둥항에서 후루다오까지 1,443km의 도로가 각 도시를 연결
- 해당 경제발전계획은 일핵(壹核), 일축(壹軸), 양익(兩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
 - 일핵(壹核)은 다렌시를 의미하며, 다렌시를 라오닝연해경제벨트의 중심으로 두고 글로벌 해운·물류기진 및 지역 금융 허브로 육성시킬 계획
 - 일축(壹軸)은 라오둥반도의 다렌시, 잉커우시, 판진시에 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양익(兩翼)은 황해와 발해에 수출 중심 지역을 개발한다는 의미

< 라오닝연해경제벨트의 주요 개발 구역 >

구역	주요 계획
다렌창싱다오항만공업구	조선, 정밀기계 산업 육성, 복합 물류 센터, 항만 구축
다렌화원구경제구	농수산물 관련 제조 클러스터 구축
잉커우연해산업기지	기계 장비, 금속, 소형 선박 제조업 육성
판진라오빈연해경제구	해양장비 제조업 육성
단둥산업단지	자동차, 제지, 물류 산업 육성
진저우만연해경제구	석유화학, IT, 대형 선박 제조업 육성

2) 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2009).

3. 하다치공업벨트(哈大齊工業走廊)

- 2004년 헤이룽장성 정부는 지역 내 미사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 하다치 공업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
 - 이후 중앙 정부는 하다치공업벨트를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로 승인(중국 전체에서 다섯 번째)

- 하다치공업벨트 개발 계획은 15년 간 총 3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제조업 중심의 육성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육성이 목표
 - 지역 내 자원 생산 및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조달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제조업 생산 기지를 건설
 - 이후 첨단 과학 및 IT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동북3성과 러시아 간 물류 거점을 형성할 계획

-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 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수립
 - 헤이룽장성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 지구 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최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이밖에 첨단 산업에서의 사업 성과,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의 진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하다치공업벨트의 단계별 주요 목표 >

단계	목표
1단계 (~2010)	유휴지역 및 비활용 농지 251km ² 대상 인프라 투자 및 개발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노후 공업기지 활성화 2,215억 위안 투자(기초 인프라 472억 위안, 생산 설비 1,743억 위안)
2단계 (~2015)	유휴지역 및 비활용 농지 558km ² 대상 인프라 투자 및 개발 기계장비, 석유화학, 식품, 제약 등의 제조업과 물류 산업 육성
3단계 (~2020)	유휴지역 및 비활용 농지 921km ² 대상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첨단 과학, IT, 생태환경 중심의 지역 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E)	
			1/4	2/4	3/4	4/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	-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	-1.9	-11.9	-4.6	1.5	9.9	-1.5	6.7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6,067
	증감률(%)	(19.0)	(-1.3)	(0.4)	(0.7)	(2.7)	(4.7)	(2.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5,697
	증감률(%)	(23.3)	(-0.9)	(-3.0)	(-2.8)	(0.3)	(2.5)	(-0.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